

## 5/23(월) 읍기 1-5장 읍, 고뇌하는 신양인

성경은 오래전 면 곳, 이방 땅으로 눈을 돌립니다.  
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일반적인 인간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.

욥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 
(1:2, 10은 완전을 상징) 물질적으로 매우 번영했고,  
경건함에서도 가족 제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 
<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>였습니다(1:3-5, 29장).

그러나 욥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(1:15-19, 2:7,9).  
그가 당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의 집합체입니다.  
욥은 안락함에만 길들여져있는 유약한 신양인이 아니었으며(1:9),  
고난을 당했을 때 직관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(1:21-22, 2:10).  
고난 자체에 대해서 욥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.

정작 욥에게 문제가 된 것은 <신양>이었습니다(3장 이후).  
욥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.  
하나님이 계시며 선하신 분임을 믿기에 고뇌한 것입니다.  
<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? > 헤롤드 쿠시너  
욥은 하나님의 정의(justice)와 침묵에 대해 질문했습니다.

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<통제> 하에 있습니다(1:6,12, 2:1,6).  
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,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(약1:12-17).  
복잡한 인간사와(자유의지를 지닌) 피조세계 가운데 생기는  
전쟁, 대화재, 자연재해, 사별, 광야 등의 고난에 대하여  
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시며 섭리로 살피십니다(롬8:35,39).

“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 
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”  
(고전10:13, 롬 36:15-16 참고)

나는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?  
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합니까? 하나님께 계신지 질문합니까?